pISSN 1229-1153 *J. Fd Hyg. Safety*
Vol. 27, No. 3, pp. 203~208 (2012)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주요 식품안전사건에서 정부와 언론이 사용한 보도용어의 차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오세라 · 신원정 · 박태균[1] · 김보영[2] · 김호식[3] · 이정호[4] · 황성휘[4] ·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1]중앙일보, [2]한양대학교, [3]한국과학기자협회, [4]식품의약품안전청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Reporting Terms of Government and Media on Risk Communication in Major Food Safety Incidents

Se-Ra Oh, Wonjung Shin, Tae-Gyun Park[1], Renee Kim[2], Ho-Sik Kim[3], Jeong-Ho Lee[4], Seong-Hwi Hwang[4], and Sang-Do Ha*
Schoo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Ang University, Korea
[1]Joong-Ang Daily Newspaper, Seoul, Korea, [2]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Korea
[3]Korean Science Reporters Association, Seoul, Korea, [4]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song, Korea
(Received March 22, 2012/Revised May 18, 2012/Accepted August 22, 2012)

ABSTRACT - In the present study, we collected the information of the 18 major food safety incidents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10 experts to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terms used in reporting of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on risk communication.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ormation from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discord of terms used from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edia and consumer groups had a tremendous effect on the socioeconomic losses and caused the expansion of the incidents. The survey with 10 expert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in ripple effect of reporting terms and the difference in reporting terms. A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865. Therefore, ripple effect of inci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eporting terms and we concluded that standardization of term is necessary in reporting of the food safety inci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among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consumers.

Key words: food safety incident, media, risk communication, reporting term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불량만두, 기생충알 김치, 낙지 카드뮴 등 대형 식품안전사건들은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이 요구되는 동시에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와 뉴미디어들도 식품 관련 정보들로 지면과 시간을 채우고 있다[1,2]. 실제로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건강, 식품, 영양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면의 17.5%라고 조사된 바 있으며[3],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으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4]. 다양한 식품정보 중 식품안전사건에 대한 보도의 영향은 소비자로부터 급격히 확산되어 관련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5], 식품안전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식품안전사건의 상당수가 언론의 지나친 상업주의, 전문성 부족, 과장 보도, 선정성 때문에 빚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6].

최근 식품안전사건의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7], 향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보도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사건 발생 시 risk assessment(위해평가), risk management(위해관리), risk communication(위해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 중 risk communication은 위해분석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부, 언론, 소비자 및 기타 이해 집단들이 공유하고 위해관리 결정의 근거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서[8] 정부, 언론, 소비자가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서로 신뢰해야만 최선의 risk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

*Correspondence to: Sang-Do Ha, Schoo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Ang University, Ansung 456-756, Korea
Tel: 82-31-670-4831, Fax: 82-31-675-4853
E-mail: sangdoha@cau.ac.kr

지금까지 발생한 다수의 대형 식품안전사건은 risk communication이 부재 또는 미흡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risk communication의 한 축인 정부, 지자체와 언론 사이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논의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9].

현재까지 식품안전 보도용어와 보도의 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었으며,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또한 수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식품안전사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델파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식품안전사고의 보도에 정부, 지자체와 언론이 주로 사용한 용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용어의 차이가 risk communic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정부, 기업, 소비자간 성공적인 risk communication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18가지 주요 식품안전사건으로 우지라면 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납 꽃게 사건, 광우병 파동, 구제역 파동,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 불량만두 사건,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납 김치사건, 김치 기생충알 사건, 과자 아토피유발 논란, 학교급식 노로바이러스 오염 사건, 멜라민 분유 사건, 생쥐머리이물 사건,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 일본산 식품 방사능오염 사건, 슈퍼박테리아(죽음의 오이) 사건, 고름우유 사건을 선정하였고[10,11], 각 사건의 개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선정된 사건들의 언론보도자료, 정부대응자료 및 생산자 또는 학회의 반박자료를 수집한 후 정부, 지자체, 언론 및 소비자단체가 사건보도에 주로 사용한 용어를 비교하였다.

또한 언론의 보도용어와 정부의 대응용어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지는 “보도 및 대응용어가 사건에 끼칠 것이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두 용어가 소비자에게 주는 느낌의 차이 정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배점은 ‘매우 작다, 작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해당 설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이메일 회신 또는 대면 회수하였고, 발송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건별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평균값으로 표기하고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였으며, “보도 및 대응용어의 파급효과차이 정도”와 “용어차이 정도”를 두 변인으로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그래프는 Excel 2007 software package(Microsoft Co., Redmond, USA)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용어차이 정도를 X축, 파급효과차이 정도를 Y축으로 하고 10명의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을 활용하여 18가지 사건을 그림 상에 포지셔닝하였다.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의 사전준비단계로서 정부기관, 기업 및 대학에서 10명의 전문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는 2011년 8-9월 동안 2 round로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지식의 부족과 상황 및 유사사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활용된다[12].

결과 및 고찰

식품안전사건의 보도에 사용된 용어비교

각 식품안전사건의 언론보도와 정부대응자료에 사용된 용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언론 및 검찰의 사건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지라면 사건(1989),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1998), 과자 아토피 사건(2006)을 꼽을 수 있다. 각 사건의 보도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공업용 쇠기름’, ‘공업용 우지’, ‘발암물질 방부제 포르말린’, ‘과자의 공포(과자 아토피 유발)’라는 과장된 용어를 사용하였고,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에서는 ‘비식용유지’, ‘비정제유지’, ‘원유(crude oil)’, ‘자연존재 포르말린’, ‘과자의 식품첨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납 김치 사건(2005)과 멜라민 분유 사건(2008)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다. ‘납 김치’, ‘중국산 저질 분유 멜라민 파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의 보도에는 ‘납 오염 김치’, ‘멜라민 검출 분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식품의 건전성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분노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사건으로는 납 꽃게 사건(2000)과 불량만두 사건(2004)이 있다. 언론 보도에는 ‘중국산 납 꽃게’, ‘쓰레기 만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특히 ‘쓰레기 만두’는 만두소의 위해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보도에 사용되어 사회적 파장을 가중시켰다. 두 사건에 대해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는 ‘납 첨가 꽃게’, ‘불량만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응 보도했다.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2010)의 경우, 언론보도에서 ‘카드뮴 낙지머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의 보도에는 ‘낙지머리 카드뮴 기준치 초과’라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가 낙지 내장에 함유된 카드뮴 함량의 인체위해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기생충 알의 위해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정부가 성급

Table 1. 18 개 주요 식품안전사고 개요

발생연도	사건명	내용
1989	우지라면	삼양식품 등 5개 식품회사에서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이유로 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이 구속 입건된 사건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검찰의 발표로 매출 4,000억 원의 라면시장이 얼어붙게 됨
1998	포르말린 통조림	번데기 등의 식품원료들을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하여 시가 10억여 원의 통조림을 제조, 시판한 혐의로 회사 대표들이 구속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
2000	납 꽃게	식품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중국산 꽃게에 납(Pb)을 넣어 수입 판매한 수입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
2008	광우병(BSE)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되어 광우병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2010년 11월초까지 총 161건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던 대형사건
2010	구제역(FMD)	2010년 말부터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온 나라를 뒤덮어 2011년 3월 24일 정부의 종식선언까지 도살처분 된 가축의 수가 346만 마리에 달한 사건
2008	조류 인플루엔자(AI)	2003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고병원성(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 H5N1)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376건 보고되어 있고 238건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약 25%는 AI 발생 조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으나, 국내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음
2004	불량만두	검찰이 쓰레기 무말랭이 만두소로 만두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을 구속하고, 식약청이 불량만두 생산업체 25곳 명단을 공개한 사건
2005	말라카이트 그린	중국산 장어에 이어 붕어, 잉어, 홍민어 등에서 독성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잇따라 검출되었고, 국산 향어, 송어, 자라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사건
2005	납 김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감 자료로 중국산 김치에서 0.12~0.57 ppm의 납(국산의 최고 5배)이 검출되었다고 폭로하였고, 식약청은 중국산 김치에서 0~0.05 ppm 정도의 납이 검출되었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사건
2005	김치 기생충알	중국산, 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사건으로 기생충알이 묻은 식품을 먹더라도 쉽게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이 아닌데, 정부의 충분한 검토 없는 성급한 발표로 소비자의 불안을 키운 식품파동
2006	과자 아토피 유발	한 국내 언론이 식품첨가물이 든 과자류를 먹으면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악화된다고 보도해 소비자 불안이 확인되었으나, 식약청이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한 사건
2006	학교 급식 노로바이러스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에서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인천・경기지역 68개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2008	멜라민 분유	중국에서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섞어 만든 분유를 먹고 영아들이 신장결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자 국내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원료를 쓴 과자, 커피크림 등을 회수한 사건
2008	생쥐머리 이물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16 mm 크기의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된 사건
2010	낙지머리 카드뮴	서울시가 시내 주요 유통업체에서 팔리는 낙지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며 낙지머리를 제거하고 먹으라고 권고했지만, 식약청은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 중 중국산 낙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류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된 사건
2011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실시함
2011	슈퍼 박테리아(죽음의 오이)	독일에서 스페인산 ‘죽음의 오이’로 매스컴을 탄 장출혈성 대장균(*E. coli* O104:H4)이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번져 파장이 일었던 사건
1995	고름우유	한 국내 언론에서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온다’라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파스퇴르 유업의 “우리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파장이 커지게 된 사건

하게 발표하여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던 김치 기생충알 사건(2005)에서는 ‘기생충 알 김치파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는 ‘기생충 알 오염 김치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던 광우병 파동(2008),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2005), 생쥐머리 이물사건(2008), 슈퍼박테리아 사건(2011), 고름우유 사건(1995)에서는 언론의 보도에서 ‘미친 소 광우병’,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생쥐깡 사건(생쥐머리 새우깡)’, ‘슈퍼박테리아’, ‘죽음의 오이’, ‘유럽발 장출혈성 대장균 악성 변종’, ‘유방염 젖소 고름우유 사건’이라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의 보도에는 ‘광우병(BSE)’, ‘말라카이트 그린’,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 발

Table 2. Reporting terms in 18 major food safety incidents

Incidents	Reporting terms of media	Reporting terms of government
Beef tallow instant noodle	Industrial beef tallow, Industrial fat and oil	Inedible fat and oil, Raw fat and oil, Crude fat and oil
Formalin canned food	Formalin added Carcinogenic preservative	Naturally occurring formalin
Lead blue crab	Chinese lead blue crab	Lead added blue crab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Mad cow disease	Bovin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Foot-and-mouth disease(FMD)	Foot-and-mouth disease(FMD) shock	Foot-and-mouth disease(FMD) outbreak
Avian influenza(AI)	Bird flu	Avian influenza(AI)
Bad *Mandu*	Garbage *Mandu*	Unacceptable *Mandu*
Malachite green	Carcinogen malachite green	Malachite green
Lead *kimchi*	Lead *kimchi*	Lead contaminated *kimchi*
Parasite egg *kimchi*	Parasite egg *kimchi* shock	Parasite egg contaminated *kimchi*
Atopy snacks	Fear of snacks, Atopy induction by snacks	Food additives in snacks
School meals Norovirus	School meals crisis	Incident of Norovirus food poisoning by school meals
Melamine powdered milk	Melamine shock by Chinese poor powdered milk	Melamine in powdered milk
Mouse head foreign substances	Mouse Snack incident (Mouse head Shrimp Snack)	Mouse head suspect foreign substance in Shrimp Snack
Cadmium in small octopus head	Cadmium small octopus head	Unacceptable amount of Cadmium in small octopus head
Radioactive contaminated Japanese food	Japanese radioactive contaminated food	Japanese radioactive substance contaminated food
Super bacteria *E. coli*(Killer cucumber)	Super bacteria, Killer cucumber, European Enterohemorrhagic *E. coli* malignant mutant	Mutant Enterohemorrhagic *E. coli*
Pus milk	Incident of pus milk by mastitis dairy cattle	Unacceptable somatic cell detected milk

견 새우깡', '변종 장출혈성 대장균', '체세포 초과 검출 우유'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파동(2010),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2003), 학교급식 노로바이러스 오염 사건(2006),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 사건(2011)에서는 언론이 '구제역 파동', '조류독감', '학교급식 대란',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이라는 용어를 보도에 사용,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는 '구제역 발생', '조류 인플루엔자(AI)', '학교급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건', '일본산 방사성 물질 오염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건의 보도에 언론이 사용한 용어와 정부와 생산자 및 학회가 사용한 용어를 비교한 결과, 언론은 주로 쓰레기, 발암물질, 죽음, 고름, 파동 등 자극적인 보도용어를 사용하였고, 언론 및 정부, 생산자, 학회에서 사용한 각각의 용어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론의 과장된 보도,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검찰·언론의 사건 발표 등과 함께 식품안전사건을 확대시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산업적, 경제적 손실도 야기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사사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와 언론간 risk communication 또는 정부와 지자체간 risk communication 방안 연구와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주요 식품안전사건에 대한 보도 및 대응용어의 파급효과차이 정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용어의 파급효과 차이는 전문가들이 답한 보도용어의 파급효과 점수에서 대응용어의 파급효과 점수를 뺀 값으로, 대응용어를 사용할 때 줄어들 파급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용어가 사건에 미칠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차이 정도가 가장 큰 사건은 과자 아토피 유발 사건(2.7)으로 나타났으며,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2.4), 고름우유 사건(2.2), 우지라면 사건(1.8), 불량만두 사건(1.7)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사건에 대한 보도용어와 대응용어가 소비자에게 주는 느낌의 차이 정도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불량만두 사건, 과자 아토피 유발 사건, 고름우유사건(4.7)에서 용어의 차이 정도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우지라면 사건(4.5), 슈퍼박테리아 사건(4.2),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4.1),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3.8)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보도 및 대응용어의 파급효과차이 정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건들과 두 용어의 차이 정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건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용어차이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이 상관계수 0.865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보도 및 대응용어의 차이가 크면 두 용어가 사건에 끼칠 파급효과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ripple effect between two reporting terms

No.	Incidents	Average (n = 10)	Rank
1	Cow tallow instant noodle	1.8	4
2	Formalin canned food	2.4	2
3	Lead blue crab	0.1	18
4	Bovin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1.2	9
5	Foot-and-mouth disease(FMD)	0.3	17
6	Avian influenza(AI)	0.6	13
7	Bad *Mandu*	1.7	5
8	Malachite green	1.6	6
9	Lead *kimchi*	0.8	12
10	Parasite egg *kimchi*	0.6	13
11	Atopy snacks	2.7	1
12	School meals Norovirus	0.5	15
13	Melamine powdered milk	1.1	10
14	Mouse head foreign substances	0.9	11
15	Cadmium in small octopus head	1.4	8
16	Radioactive contaminated Japanese food	0.4	16
17	Super bacteria *E. coli*(Killer cucumber)	1.5	7
18	Pus milk	2.2	3

Table 4. Difference in feeling about two reporting terms

No.	Incidents	Average (n = 10)	Rank
1	Cow tallow instant noodle	4.5	5
2	Formalin canned food	4.7	1
3	Lead blue crab	2.9	13
4	Bovin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3.7	9
5	Foot-and-mouth disease(FMD)	2.5	16
6	Avian influenza(AI)	2.5	16
7	Bad *Mandu*	4.7	1
8	Malachite green	4.1	7
9	Lead *kimchi*	2.7	15
10	Parasite egg *kimchi*	2.9	13
11	Atopy snacks	4.7	1
12	School meals Norovirus	3.0	12
13	Melamine powdered milk	3.4	10
14	Mouse head foreign substances	3.2	11
15	Cadmium in small octopus head	3.8	8
16	Radioactive contaminated Japanese food	2.2	18
17	Super bacteria *E. coli*(Killer cucumber)	4.2	6
18	Pus milk	4.7	1

식품안전사건의 보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사건의 파급효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와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클수록 사건의 파급효과도 커져 소비자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보도용어의 불일치는 risk communication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정부, 언론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도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어의 표준화는 언어에 의한 정보, 지식,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객관적 정보교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3]. 식품안전사건의 보도에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은 언론의 과장된 보도를 줄여 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돕고, 정부, 기업, 소비자 사이의 risk communication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 및 언론인과 수시로 식품안전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14], 정부, 지자체 및 언론이 서로 사건에 대한 위해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후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정부, 언론, 소비자 사이의 최선의 risk communication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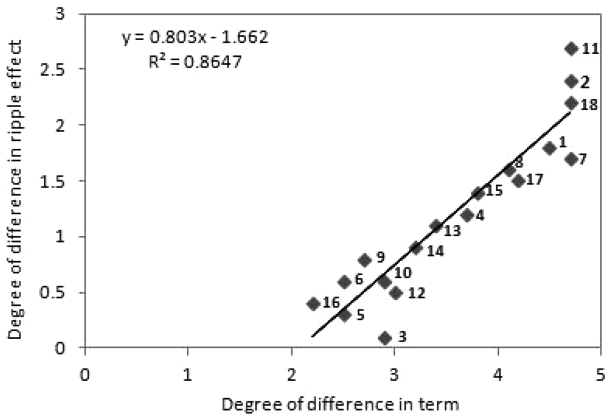

Fig. 1.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difference in ripple effect and the degree of difference in term (◆ incident number).

기업, 소비자간 성공적인 risk communication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식품안전사건의 보도에 사용되는 용어의 차이가 risk communic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8가지 주요 식품안전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사건의 보도에 사용된 용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식품안전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 지자체, 언론 및 소비자 단체가 사건의 보도에 사용한 용어의 불일치는 사건을 확대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도 및 대응용어의 파급효과차이 정도와 소비자가 느끼는 두 용어의 차이 정도에서 과자 아토피 유발 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고름우유 사건, 불량만두 사건 등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건들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65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보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사건의 파급효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보도 시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 결과는 정부, 기업, 소비자간 성공적인 risk communication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용역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로 이에 감사드리며(11022 정책연788),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경규항, 이광원, 정명섭, 박기환, 정해랑, 김건희, 이상윤, 문은숙, 이동하, 전향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Woo, J.M., Ryeom, T.K., Hwang, J.H., Oh, W.Y., Jang, D.D. and Lee, H.M.: The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Food Risk Factors. *J. Fd. Hyg. Safety*, **2**(2), 11-18 (2007).
2. Lee, G.O.: Food Risk Communication and Media. *J. Fd. Hyg. Safety*, **2**(2), 19-27 (2007).
3. Moon, H.K., Yong, M.J. and Jang, Y.J.: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for Articles and Advertisements in the Daily Newspapers. *J. Korean. Diet. Assoc.*, **10**(2), 143-158 (2004).
4. Lupton, D.: 'A Grim Health Future' Food Risk in the Sydney Press. *Health. Risk & Society*, **6**(2), 187-200 (2004).
5. Lee, E.J.: The Effect of BSE News Reports on Beef Intake. *J. Fd. Server. Management*, **4**, 223-239 (2001).
6. 정기혜: 환경감시인가 공포감 조성인가, 신문과 방송 12월호, 한국언론연구재단, 132-139 (2005).
7. Bahk, G.J.: The Analysis of Food Safety Incidents from 1998 to 2008 in Korea. *J. Fd. Hyg. Safety*, **24**(2), 162-168 (2009).
8. 신동화, 오덕환, 우건조, 정상희, 하상도: 식품위생안전성학. 한미의학, 서울, 413 (2005).
9. Lee, G.O. and Park, J.W.: A Frame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The *Kimchi* Risk in 2005. *Korean. J. Broadcasting*, **20**(5), 260-305 (2006).
10. 이철호, 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11. 이철호: 식품위생사건백서II.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2. 이종성: 델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서울, 16-17 (2006).
13. Kim, R., Sung, W.K. and You, B.J.: Management System for Term Standardization. *J. Korea. Contents. Assoc.*, **7**(1), 94-98 (2009).
14. 황윤재: 제6장 소비자의 식품안전정보 이용실태와 시사점, 농업전망 2011(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7-166 (2011).